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7. 2.

## 동해해수청, 동해·묵호항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용역 착수 - 항만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한 항만 구축-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관내 항만시설물(총42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40개소) 및 정밀안전진단(2개소)을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항만법'에 따라 점검 시기가 도래한 항만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용역은 항만시설물의 위험 요소 등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확인 점검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개월간 추진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항만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계획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만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설물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항만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위험요소 사전제거로 재해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책임자	과 장 김 연 수 (033-520-6251)
		담당자	주무관 박 준 상 (033-520-6260)